

‘견인 가능’에도 행정 ‘낮잠’...알박기 캠핑카는 ‘단잠’

개정법 시행 1년 광주 ‘견인 0건’...구청,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해
‘메뚜기 주차’ 땐 단속 힘들어...공영주차장 곳곳 불법주차로 몸살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에 ‘알박기’ 장기 주차를 한 캠핑카나 트레일러 견인이 가능해졌지만 1년이 넘도록 이들 차량에 대한 견인은 이뤄지지 않는 등 자치구의 소극적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공영주차장 알박기 주차는 버젓이 반복되고 있어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월 9일 개정된 주차장법은 ‘주차요금 징수되지 않는 노외·노상 주차장, 국가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한 부설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차량을 이동, 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도 광주시 곳곳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트레일러는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9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주차장에는 야외 주차장 565면 중 장기 주차로 추정되는 캠핑카와 트레일러 22대가 줄줄이 주차돼 있었다.

트레일러를 여닫는 문 손잡이에 거미줄이 잔뜩 쳐져있고 바퀴 주위로 풀이 무성히 나있거나 한쪽 바퀴의 바람이 빠졌는지 눈에 띄게 기울어져있기도 했다. 각 차량 번호판은 햇빛에 바랜 듯 가장자리가

벗겨지고 숫자가 희미해진 상태였다. 주차장 입구에는 센터 측에서 설치한 ‘장기주차는 무단방지로 간주하고 견인하겠다’는 안내문이 있었다.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 마련된 300여면 규모의 주차장에도 캠핑카, 트레일러 등 20대가 방치돼 있었다. 주차칸에 주차된 것은 5대였으며, 주차면을 무시하고 주차장 가장자리에 줄줄이 주차된 경우도 다수였다. 이곳의 차량들 역시 거미줄과 먼지, 낙엽 등이 잔뜩 쌓여있었다.

같은 날 남구 주월동의 구 보훈병원 주차장(113면)에서도 방치된 캠핑카 5대가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었고,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2대), 5·18자유공원(1대), 북구 대촌동 드론공원주차장(1대) 등 공영주차장마다 캠핑카가 주차돼 있었다.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은 구입 시 법적으로 차고지를 증명해야만 하지만,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주차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파트에서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추가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캠핑카들이 공영주차장에 쌓이고만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법 개정까지 이뤄졌음에도 단속에 미온적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7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차량을 견인 조치한 건수

는 ‘0건’으로 집계됐다.

각 자치구는 차주에게 ‘이동 주차 요구’만 하고, 견인은커녕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매긴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광주시 5개 자치구에는 65건의 캠핑카·트레일러 장기 주차 관련 불만 민원이 접수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각 자치구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견인 조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단속은 장기 주차 차량에 ‘이동 주차 요구’ 예고장을 붙인 뒤, 차적을 조회해 차주에게 이동 주차 요구를 하고 한 달 동안 지켜보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에서 단속 조건으로 내건 ‘1개월 방치’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같은 공영주차장 내라도 주차면 한 칸이라도 옆으로 이동하면 이동주차 조치를 한 것으로 처리돼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자치구 관계자 설명이다.

‘메뚜기’처럼 주차장 내에서 자리를 옮겨 가며 얇게 주차를 하는 차주들을 대상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현재 법령 및 단속체계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장기주차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시 북구 비엔날레 주차장에 9일 오후 캠핑용 트레일러들이 연이어 주차돼 있다. /남주 기자 mjna@kwangju.co.kr

도둑 든 줄도 모른 전남산림연구원

책 2200여권 분실 2개월만에 인지...뒤늦게 경찰 신고
사무실 이전하며 방치한 도서 폐지 수거업체 무단 수거

전남도 산하기관인 전남 산림연구원이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방치한 도서와 시험 연구 간행물 등 2200여권의 기록물을 폐지 수거업체가 무단으로 수거해 폐기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산림연구원은 기록물이 사라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 2개월 후에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 산림연구원과 전남 도로관리사업소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훈계)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최근 3년 6개월 간 전남 산림연구원과 전남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부적정한 업무 행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전남 산림연구원은 지난 2024년 9월경 사업소 사무실을 증축 이전하면서 도서와 시험연구 간행물 등을 실험설계실에 임시 보관했는

데, 아무런 보안 조치 없이 방치함에 따라 10월 1일 폐지 수거업체가 무단으로 설계실에 들어와 도서 2213개를 수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림연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개월 후인 11월 29일에서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산림연구원은 총 2155건의 지출 증빙서류도 함께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도로관리사업소는 운행제한 위반 운전자 16명이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는 데도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고지하지 않고 재산 압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는 행정청은 위반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미납하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해야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민변 “교직원 집회 참여 막는 공무원법 위헌제청해야”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이 법원에 교직 공무원에 대한 집회 시위 참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헌 제청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금렬(53)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데 따라 성명을 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백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집회 시위 참가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

라”고 요구했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22년 서울, 광주 등지에서 시국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전남 도시재생 운영조직 네트워크 16일 개최...11일까지 참가 신청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16일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25 전남 도시재생 운영조직 네트워크’를 개최한다.

전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참여주체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일까지 참가 신청자를 받는다.

행사는 우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지 탐방,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마을조직 라운드테이블 운영, 참여자 간 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순천시 저전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한 현장 탐방을 통해 주요 거점시설을 직접 방문해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지속성과 지역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환경단체 “새 정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

지리산지킴이연석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의 등 5개 단체(이하 단체)는 10일 서울시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전면 백지화’ 방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폐지’ 정책은 오히려 개발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는 과거 지리산 케이

블카를 단일 노선으로 제한했던 규제를 없애고, 현재 계획된 3개의 노선을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다시는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케이블카를 국립공원 내 설치 가능 시설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SNS 서포터즈 모집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섬에 대한 관심이 많고 SNS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며 전남 지역 방문 취재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된다.

조직위는 채널별 5명 이내, 총 20명을 선발하여 섬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섬·음식·관련 행사 등 섬박람회에 대한 SNS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고,

섬박람회를 알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직위에 제공하게 된다.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섬박람회 개최 기간에는 취재를 위한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SNS 운영 수준, 콘텐츠 제작 능력, 서포터즈 활동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섬박람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쿵!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쿵!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쿵!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손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은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